

금리하락·추경편성 등 우려 겹쳐 韓 떠나 美로 피신하는 ‘채권개미’

개미들, 이달 채권 1.5조 순매수
지난달 2.9조 보다 2.4조 줄어
美 채권 순매수액 68.6억 달러
통계집계 이래 가장 큰 규모

“CJ제일제당과GS리테일회사채 팔고 미국 하이일드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샀는데 잘한 걸까요?” “잘하신 겁니다. 채권도 미장(미국 증시)으로 옮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27일 채권개미(채권투자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왔다.

불안한 시장 분위기에 지친 ‘동학채권개미’(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고 있다. 올해 홈플러스 등 중견·중소기업의 신용위기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 추가경정예산 편성 우려 등이 겹치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위협피해 심리가 높아지면서 미국 주식에서 채권으로 피신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월 들어 25일까지 개인투자자 채권 순매수 규모는 1조5486억원으로 타나났다. 지

난 3월 3조9137억원 보다 2조4000억원 가량 적다.

개인투자자들의 채권순매수 규모는 1월 3조1047억원에서 2월 3조3457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매달 3조원 이상의 채권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 추세대로라면 이달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순매수 규모가 2조원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미들은 해외 채권을 늘리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채권 순매수액은 68억 5986만 달러(9조8541억원)다. 201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올해 전체 국내 채권 순매수액 11조 9217억원보다는 적다. 하지만 4월 순매수액은 21억3821만 달러(3조715억원)로 국내 채권 매수액 보다 많다.

‘동학 채권개미’들의 매수세가 한풀 꺾인 건 최근 급격히 하락한 금리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많은 탓으로 풀이된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여 채권 금리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국고채 3년물 최종호가수익률은 이달 초만 하더라도 연 2.581%였으나 지난 25일 2.305%로 연저점을 경신했다.

10년물도 연 2.787%에서 2.576%로 떨어지는 등 이달에만 20bp(1bp=0.01%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홈플러스 등 올해 중견·중소기업의 신용위기 우려가 커진 영향도 있다.

시장에서는 채권시장까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강남구 A 증권사의 PB 센터장은 “요즘 고액 자산가들은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 투자를 꺼려 판매를 보류했다”면서 “해외 채권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개미들이 국장을 외면할 경우 기업 자금조달 시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22년 상반기 월평균 8500억원에 그쳤던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시장 비중이 최근에는 10%로 커지는 등 채권 시장의 주요 투자자로 부상했다. 은행·자산운용사·외국인 다음으로 순매수 규모가 크다.

회사채 시장 분위기도 안 좋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채를 비롯한 대규모 공사채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신용경색 발생 시 ‘본드런(bond run)’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코스닥 CEO 인터뷰

안인주 핑거대표

핀테크 기업 핑거가 ‘디지털 금융 혁신 플랫폼’을 앞세워 새 판을 짜다. 안인주 핑거 대표는 “올해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전문 그룹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안인주 대표는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통해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핑거의 출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AI·블록체인 등 독자 솔루션에 서울대 협력 AI 플랫폼 등 차별화 독도버스·핑거AI패드 등 선보여

초창기부터 개인 금융정보 통합관리 서비스(PFMS)를 선보이며 시장을 개척했고, 스마트뱅킹과 자산관리로 사업을 확장했다.

지난 2000년 창립한 핑거는 25년 업력을 기반으로 기술력, 시장 적응력, 혁신 역량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AI·블록체인·클라우드·데이터(ABCD) 독자 솔루션과 서울대 협력 AI·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핑거만의 차별화 포인트다. 독도버스, 파로스, 핑거AI패드 등 차세대 플랫폼도 잇달아 선보이며 외연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사의 주요 사업은 비대면 금융 플랫폼 구축, AI·블록체인·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제공, 핀테크 수수료 사업, IT 아웃소싱 등이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대

상으로 스마트 플랫폼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솔루션을 앞세워 금융권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있다. NFT, STO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핑거는 SaaS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맞춤형 솔루션 공급을 넘어 플랫폼 중심 사업 모델로 체질을 바꾸려는 중이다.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뽕겨요’, 한국조폐공사의 ‘온누리상품권’ 운영 경험도 SaaS 경쟁력으로 녹여냈다. 핑거는 이와 함께 기업 고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며 업계 내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안 대표는 “올해 핑거는 AI, 블록체인, STO 기술을 SaaS 모델로 전환해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매출 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고 강조했다. 그룹사 간 시너지 강화와 연계 사업 확대도 수익구조 안정도 함께 꾀할 방침이다.

핑거의 성장 전략은 세 갈래다. 첫째, 자율성과 존중이 공존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인재를 적극 육성한다. 둘째, AI 기반 신규 SaaS 서비스를 통해 수익 기반을 다각화한다. 셋째, 핑거패밀리(계열사)와의 협업을 강화해 통합 플랫폼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안 대표는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파는 회사가 아니다”며 “고객과 사회에 실질적 가치를 주는 디지털 금융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핑거가 추구하는 비전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kdh@

높은 수익에 절세까지... CFD에 ‘몽칫돈’

금투협, CFD 명목잔고 1.7조
전년 1조 대비 약 61% 급증
해외 매수잔액 5075억, 3배 ↑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최근 불안한 증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노릴 수 있고 절세까지 가능한 해외주식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에 고액자산가·전문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증거금을 포함한 CFD 명목잔고는 1조6994억원으로, 1년 전(1조550억원) 대비 약 61% 급증했다. 지난 2023년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신규 거래가 중단됐던 CFD는 같은 해 9월 거래가 재개된 이후 거래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CFD는 주식 등 실제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 간 차액만 거래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월평균

잔액 3억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는 증거금의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11%의 과세상품 양도소득세만 부과돼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시 CFD에도 22~27.5%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기존 세계 혜택이 유지돼 절세 메리트는 더욱 강화됐다.

/원관희 기자 wkh@

이러한 절세 효과는 해외주식 거래에서도 부각되고 있다. 지난 24일 기준 CFD 해외 매수잔액은 5075억원으로, 전년(1521억원)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과세기준이 원화로 산정돼 매매차익과 환차익 모두 과세 대상이지만, CFD를 이용하면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져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CFD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며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관련 자산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최근 공매도 거래 재개와 절세 효과까지 부각되면서 투자 수요가 더욱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CFD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나 하락 방어 전략이 당분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현대차증권 MTS에 주식 브리핑 서비스

현대차증권은 현대차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내일’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내 및 미국 주식 종목 브리핑 서비스를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AI 종목브리핑 서비스란 국내 및 미국 주식 전 종목(ETF 포함)의 가장 최근 주가 등락 사유와 핵심 이슈를 뉴스를 토대로 매일 브리핑해주는 서비스다. 생성형 AI가 개별 종목에 발생하는 방대한 뉴스를 분석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를 선별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해 제공한다.

특히, 미국 주식의 경우 개별 종목 관련 영문 뉴스, 공식 및 어닝콜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 한글로 번역·요약해 제공한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의 경우, 주요 구성 종목의 이슈 현황과 뉴스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5월부터는 ‘나의 AI 종목 브리핑’ 화면을 이용하면 보유 종목에 대한 AI 종목브리핑을 모아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대차증권은 ETF 투자정보 강화를 위해 ETF 파인더 서비스도 선보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간병비 입증 못하면 보험금 지급보류”

금감원 Q&A

간병보험 주요 민원 사례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간병에 드는 사적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약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간병보험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 시 약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골절로 입원한 A씨가 외부 간병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간병비 지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실제로 간병인을 이용했다라도 비용을 입증할 수 없다면 보험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다른 사례에서는 지인이 간병을 도운 뒤 보험금을 청구한 B씨의 경우, 보

험사가 실제 간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신 경우, 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전문간호인력이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이용하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병원 내 전문 인력이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로, 일부 보험약관에서는 이 서비스를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C씨는 약관상 보상 제외 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치매 간병비(진단비)와 관련한 사례도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D씨는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상 ‘치매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약관에는 단순한 진단뿐 아니라 보행,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허정윤 기자